

농림축산식품부-aT

2016년 외식소비 행태분석 조사  
2017년 외식트렌드 키워드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는 '16년 외식소비 행태분석 조사결과 및 '17년 외식트렌드를 발표했다.

먼저, 2016년 외식소비행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식빈도는 월평균 15.0회로 '15년 14.7회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피 등 음료류 외식빈도는 월평균 6.9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외식시 주로 이용하는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배달외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치킨류, 포장외식은 패스트푸드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혼밥' 이슈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56.6%가 혼자 외식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월 평균 혼자외식을 하는 빈도는 6.5회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2017년 외식트렌드는 '나홀로 열풍', '반(半)외식의 다양화', '패스트 프리미엄(Fast-Premium)', '모던한식의 리부팅(rebooting)'의 키워드로 정리됐다. '나홀로 열풍'은 1인외식이 보편화 되는 소비시대를 의미하며, 혼자 밥을 먹고 술과 커피를 마시며 즐기는 외식문화의 확산을 의미한다. '반(半)외식의 다양화'는 포장외식의 확대와 다양화를 의미하며, 집에서 나만의 레스토랑을 즐기는 것처럼 고급화된 포장외식을 다양하게 소비하는 현상이다. '패스트 프리미엄(Fast-Premium)'은 식사형태는 간편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지만 건강하고 고급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가금질병 대응기술 향상 논의  
안전 축산물 생산...민·관·학 세미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서 주관하는 민·관·학 합동 연구모임인 '한국가금질병연구회'는 11월 4일(금)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가금수 의사회'와 공동으로 현안 가금질병 대응기술 향상과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축산관련 기관, 동물병원, 학계, 가금 사육농가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류 근골격계 질병, 근위염, 주요 오리질병 등 현안 질병 발생상황과 대응기술,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구서 등 농장위생관리 실무,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을러, 현안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기술 정보교환과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참가자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계기가 돼 정부 3.0 정책의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세미나가 현장 질병문제에 대응하는 방역기술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참여하는 가금질병 학술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에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최근 5년(‘11~’15년)동안 한해 평균 4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53%(24건)가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수는 한해 평균 1,306명으로 전체 식중독 연간 평균 환자수(6,314명)의 21%이며, 특히 겨울철(12월~2월) 식중독 환자수(847명)의 약 57%(480명)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였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식약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TV, 라디오, SNS 등을 이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닭 ‘클로렐라’ 먹이면 분냄새 줄어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클로렐라(chlorella)가 닭 분(똥)냄새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닭(육계)에게 클로렐라를 첨가해 먹인 결과, 일반사료를 먹인 대조구에 비해 닭 분(똥)의 암모니아 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핵산분해능력이 있는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질을 클로렐라에서 발현하게 해 (재조합)클로렐라 뿐만 아니라 미니항체 단백질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조합 클로렐라를 먹인 병아리들은 일반사료를 먹인 병아리들보다 7.2% 낮은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보였다.

한편, 재조합 클로렐라는 일반 사료만을 섭취한 대조구보다 체중 증가율은 2.5% 높았고, 사료 요구율은 3.2% 낮았다.

클로렐라는 민물에서 자라는 녹조류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로서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단백질, 엽록소,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번 연구는 클로렐라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미니항체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클로렐라가 닭의 면역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연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동물바이오효공학과 변승준 농업연구사는 “재조합 클로렐라가 닭의 분 내 암모니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물질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KOPIA 협력국 고위급 초청 워크숍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11월 15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KOPIA 사업 중장기 확대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농업산림어업부 Youth Phou Thang 차관, 스리랑카 농업부 B. Wijyaratne 차관, 짐바브웨 Christian Mandichamira Katsande 대통령실 부실장등 18개국 26명이 참가했다.

참가한 협력국 대표는 자국의 연구기관 소개, 농업정책 및 중장기 농업연구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으며, KOPIA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라승용 차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이번 워크숍을 통해 KOPIA센터 주재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나라별 고위급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KOPIA 사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 분야 공적개발 원조(ODA)사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인증 통합기관 출범대비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오혜영, 이하 식품인증원)이 2017년 2월에 있을 HACCP 인증기관의 통합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축산물인증원과 식품인증원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교원도고연수원에서 양 기관의 임원, 부서장 및 팀장을 비롯해 식약처 주무부서 공무원 등 60여명이 모여 'HACCP인증 통합기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 초에 축산물·식품HACCP 통합기관의 출범에 대비해 양 기관간 상이한 주요사업, 제도 등에 대한 사전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해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친목 및 화합의 장을 통해 기관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HACCP 인증심사는 올해까지 축산물인증원과 식품인증원으로 나눠 실시되나, 내년 초에 양 기관을 통합한 HACCP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출범되면 민원 만족도 제고, 일관성 있는 제도 확립, 효율적인 기관운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위생직 직무능력 강화 연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는 11월 1일(화)~2일(수) 충남 보령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축산물 위생분야 위생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6년 축산물 위생분야 연찬회'를 개최했다.

금번 연찬회에서는 축산물 위생사업의 정책 방향과 위생방역본부의 역할, 위생업무 효율화 및 표준화를 위한 분임토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예방 청렴교육, 감사원의 도축장 현장 활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각종 스트레스 예방 교육 및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임경중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본부는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질병청정화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생산·공급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현장직원의 노고를 격려했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대학생 맞춤형 취업 컨설팅  
일자리소통 취업캠프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이슈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채용시장에 대한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남 구례에서 '2016 일자리소통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aT는 수도권과 비교해 일자리 정보 취득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대학생들의 취업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고자 이들을 위한 농식품 분야 맞춤형 취업캠프를 개최해 다양한 관련 정보 및 개별 맞춤형 진로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 분야 취업에 관해 최신 일자리 트렌드를 분석한 특별강의가 진행됐고, 농식품 관련 기업의 전·현직 인사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일자리소통 토크콘서트」도 함께 준비해 이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aT 이우성 식품수출이사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식품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인재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